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ISSUE PAPER vol. 33

민간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의 방향성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기획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 33

I S S U E P A P E R

민간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의 방향성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이정연 학예연구사(pale201@korea.kr/기록협력과)

- I. 서론
- II. 해외 사례 분석
- III. 결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기획

-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김주연 학예연구관(yjkim0@korea.kr/경제기록과)

- I. 들어가며
- II.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설계와 실행
- III.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 내용 분석
- IV. 마무리

민간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의 방향성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이정연 학예연구사(pale201@korea.kr/기록협력과)

목 차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방법 및 범위
3. 공동체 아카이브 특징

II. 해외 사례 분석

1. 네트워킹 기반 플랫폼
2. 서비스 지향 플랫폼

III. 결론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해 다양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공동체와 민간단체의 아카이빙 활동은 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와 단체를 발전시키며, ‘비공식’ 역사를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비전문가가 아카이브에 참여하도록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아카이빙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뿐만 아니라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 민간영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단체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공동체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형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국가기록원은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을 시작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공동체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해서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공동체 기록정보 플랫폼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준비 중인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민간아카이브’는 ‘개인·기업·종교 등을 포함한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남겨서 보존하는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I. 서론

1.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¹⁾가 증가하고 공동체 기반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²⁾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를 기록화하고 스토리텔링을 통제하는 바로 그 행위가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나타나는 권력과 정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게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사회를 통합하고, 공동체와 기술을 발전시키고, ‘비공식’ 역사를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며, 비전문가인 이용자가 아카이브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수단이기도 하다.³⁾ 최근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동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적·시간적 경계를 초월한 기록의 이용을 경험하고 있다⁴⁾

우리나라는 근래 ‘아카이빙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뿐만 아니라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서 민간영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단체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의 아카이빙 활동이 상당수 일회적·단기적 프로젝트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제각각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전체적인 현황이나 주요 활동, 주목할만한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지역·국가적 수준에서의 지원과 협력, 공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기록이 주로 디지털로 생산·관리되는 환경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서의 아카이브 간 격차, 아카이브 운영에서의 디지털·정보 격차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국가기록원은 공동체와 민간단체의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서로 다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형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아카이빙 활동과 아카이브에 관련한 지식이나 기록,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와 단체에 대한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하고, 아카이브와 관련한 공동의 신속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현장의 요구사항이

1)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이니셔티브의 약어로 사용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인권을 위한 사회 정의 투쟁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는 활동가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지역사박물관, 역사학회, 민족문화 컬렉션, 종교 아카이브, 자료실, 스포츠 및 레저 등이 있음. Rebecka Sheffield, Heather MacNeil and Terry Eastwood, “Community archive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nd ed., Libraries Unlimited, 2017, p.351.

2) Ibid, p.352.

3) Ibid, p.354.

4) Ibid, p.355.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은 공동체와 민간 단체 간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국가기록원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 공동체와 민간단체 아카이브 간, 공공과 민간 간 상호작용성을 증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며 공동체 기록활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체 기록 공유 또는 아카이브 간 연계와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방법 및 범위

먼저 공동체 아카이브와 민간 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과 관련한 논문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해외사례를 확인할 것이다. 이후 해외사례와 관련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논문과 보고서의 내용을 교차 점검하고, 논문이나 보고서 내용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해당 사례와 관련한 웹사이트에서 기존 논문과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원주민과 관련하여 공동체 아카이브가 쟁점이 되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와 같이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간단하게 언급되는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네트워크나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사례 조사는 해외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현황이나 분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 내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디지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지,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등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서비스가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한정한다. 이때 네트워크 서비스의 주체를 아카이브로 제한하지 않으며, 유사 기관인 도서관이나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례 또한 포함하고자 한다.

3. 공동체 아카이브 특징

공동체 아카이브는 물건이나 책, 문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생산·수집하고 공동체 기록을 다루는 기관으로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간의 전통적인 구분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⁵⁾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식적인 문화유산기관의 파트너십이나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아카이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열망의 변화에

5) Rebecka Sheffield, "Community archive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nd ed., Libraries Unlimited, 2017, p.361.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⁶⁾ 아카이브 구성원들이 기록에 대한 관심을 잃거나 컬렉션 보관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나 프로젝트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컬렉션의 관리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문화유산기관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동체 아카이브 문화는 본질적으로 반문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동체 관리자는 자신의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주류 문화유산기관에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한다. 관리권이 공동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는 주류기관의 개입에 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류 문화유산기관과 전문적인 아키비스트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국가기록원이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은 주류 문화유산기관은 해당 공동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가치가 무엇인지, 공동체 관리자가 파트너십 활동에서 이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권장할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아마도 더 중요한 질문은 ‘공동체기록의 가치를 확인·공유하고, 이를 위해 주류 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 유산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일 것이다.

집단 정체성은 집단 내에 존재하는 공유 가치, 신념, 태도, 행동 규범을 지칭한다.⁷⁾ 공동체 아카이브는 집단 정체성 구축에 필요한 물질적 도구를 보존하고 제공하면서 이러한 집단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기본이 된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계 미국인 디지털 아카이브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이용하여 남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자 구축되었다.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기록을 보존하며 작성한 목록을 공유하고 공동체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기술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흩어진 기록을 한곳에 모으는 행위인 ‘가상 통합’은 공동체 역사를 보다 총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⁸⁾

디지털 저장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플랫폼이 개발되고 지원되도록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없으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류 문화유산기관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업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공동체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공동체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공동체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또는

6) Ibid, p.366.

7) Ibid, p.368.

8) Ibid, p.356.

아카이브 프로젝트 주체가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종종 다시는 운영되지 않거나 웹사이트가 손상되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공동체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의 설계와 유지에 있어서 대학,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이 갖는 역할과 책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주요 기능이 여러 컬렉션과 개인자료로 분산된 것을 단일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집한다는 것이다.⁹⁾ 디지털화 된 컬렉션은 특별한 이익집단이 특정 주제에 대한 기록으로 컬렉션과 컬렉션 간의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는 또한 컬렉션 아이템을 현지화된 콘텍스트로 재배치하여 공동체 관점에서의 아카이브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재맥락화는 컬렉션에 내재한 다른 곳과 의미 있는 연결을 가시화하고 컬렉션 아이템이 관심 공동체에 위치할 때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는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기록유산의 해석과 만들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장소에 연결하는 집단 스토리텔링을 지원한다.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아이템은 기존 컬렉션이 아닌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재의미화 될 수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습득하게 되는 새로운 콘텍스트, 새로운 메타데이터,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는 기존의 기록과는 구분된다.

II. 해외 사례 분석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플랫폼을 크게 공동체 간의 네트워킹에 기반한 플랫폼과 공동체 기록을 서비스하는 것에 방점을 둔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킹 기반 플랫폼은 공동체 기록을 서비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서비스 지향 플랫폼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플랫폼이라는 포털을 통해 단일하게 서비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9) Leisa Gibbons, "Community Archives in Australia: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Vol. 69, No. 4, 2020, p.463.

1. 네트워킹 기반 플랫폼

1) 영국 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공동체 아카이브 및 유산 그룹)¹⁰⁾

(1) CAHG 웹사이트 개관

2005년 공동체 아카이브 개발 그룹(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Group, CADG로 약칭)이 설립되어, CADG는 TNA와 영국 국가아카이브위원회의 지원으로 국가 수준에서 모든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량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¹¹⁾ 2011년까지 CADG는 모든 공동체 아카이브 및 유산 그룹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공동체 아카이브 및 유산 그룹(Community Archives and Heritage Group, CAHG로 약칭)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으로 ARA의 특별이익단체¹²⁾이다. CAHG는 포괄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차이가 인정되고 영구적인 유산이 생산·보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AHG는 평등·다양성·포용을 중요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평한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고 상호지원하며, 공감하고 존중하려고 한다.

CAHG는 공동체 아카이브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체 스스로 그것을 창출 하는데 최소한의 영향력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최소한의 영향력’은 CAHG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AHG는 공동체 아카이빙 실무와 구별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작업을 정의하였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에는 ‘공동체에 의해,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생산한 실제 자료(디지털 또는 물리적) 컬렉션이 포함’¹³⁾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AHG의 정의는 전문적인 지원과 개입의 가능성을 허용하지만, 컬렉션을 관리하고 개발 하는 데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CAHG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원하고 격려하며,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CAHG는 연례 어워드를 개최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혁신·우수사례를 기념하고 웹사이트에서 공유하며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동체 아카이브가 컬렉션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공동체 스스로 학습하게 하며 기술 개발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CAHG 웹사이트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10) www.communityarchives.org.uk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11) Rebecca Sheffield, "Community archive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nd ed., Libraries Unlimited, 2017, p.355.

12)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정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정책이나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형성 되고, 로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을 말함.

13) 저자 강조.

다양한 영역의 가이드와 조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워크숍과 컨퍼런스¹⁴⁾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 네트워크 협업 공간의 확장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CAHG가 공동체 아카이브의 다양한 기억과 정체성을 지원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CAHG는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전역의 공동체 조직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600여 개의 공동체 아카이브 및 유산 조직의 디렉토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 디렉토리는 CAHG가 수집·정리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 스스로 웹사이트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공동체는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자신의 아카이브를 추가할 수 있으나 등록 전에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공동체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물리적 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거나 디지털 공간을 확보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자신을 공동체 아카이브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웹사이트에 아카이브를 등록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로 정의¹⁵⁾될 수 있다. 이때 공동체 아카이브로 등록하기 위한 충족 요건은 CAHG가 공동체 아카이브를 정의한 것에 기반하여 ‘조직이나 프로젝트는 일종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컬렉션은 반드시 사진, 문서, 구술기록과 같은 원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물 또는 디지털 모두 가능하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웹사이트에 자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웹사이트의 디렉토리나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해당 아카이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찾는 아카이브가 없다면 해당 아카이브를 디렉토리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아카이브는 ‘공동체 아카이브’로 정의될 수 있다. CAHG 웹사이트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10개의 주제로 구별된다.¹⁶⁾ 이용자는 상세 검색을 통해 아카이브 디렉토리를 검색할 수 있으며, 주제별로 목록화된 아카이브를 검색할 수 있다.

(2) CAHG 웹사이트 특징 및 구성

CAHG 웹사이트 특징은 영국 전역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출처까지 포함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모두 쉽게 접근할 수

14)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2020년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

15) ‘공동체 아카이브’로 정의하는 것은 CAHG가 아니라 해당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나 프로젝트 자체에서 스스로를 정의하게 하고 있음.

16) 무역 및 산업, 시골, 소수민족 및 민족공동체, 흑인, 역사적 건물, 전쟁, 운송, 사회사, 고고학, 농업.

있는 온라인 자원으로 통합했다는 것이다. 웹사이트는 크게 주제별로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 자원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① 조직 : 목표, 사람 및 건물

조직과 관련한 정보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작하고 어떤 작업을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체 아카이브 설립과 그 방법을 위해 제공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동체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CAHG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을 위한 간단한 팁을 제공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계획과 업무계획의 차이를 구분하고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 조직에 필요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계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운영에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무와 관련하여, 내부적 절차가 무엇인지 정하고 자금 조달 및 소득에 관한 법률과 규제 그리고 자문기관과 관련한 유용한 링크, 기부금과 세금 등을 포함한 내용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재정 업무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가 위치한 건물을 자산으로 관리하고, 건물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조언 또한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통해 충당된다. 따라서 CAHG는 아카이브에서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훈련¹⁷⁾하기 위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공동체 그룹, 학교, 대학, 가족과의 연결을 통해 그리고 지역 홍보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지침은 자원봉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보상하는 데 유용하다. 아카이브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아카이브가 감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선물 주는 것 등 자원봉사자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인력 충당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법이다. CAHG는 이것을 ‘①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 ② 어떤 종류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한지 생각

17) 자원봉사자에 대한 투자(iv)는 자원봉사자 관리의 우수 실무를 위한 영국 표준 웹 사이트로 조직과 그룹이 하는 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갖추고 있음. 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및 아일랜드 공화국)은 자체적인 자원봉사 관리책임기관이 있으며, 표준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먼저 등록해야 함.

하기 ③ 모집할 마케팅 ④ 자원봉사자 선택 및 준비하기'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들을 목표로 작성된 것이지만, '자원봉사자 훈련, 고객관리, 장애에 대한 인식,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박물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아카이브 운영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CAHG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상당수의 공동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문화기관인 지역도서관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그 예이다.

② 자금 조달 지원

공동체 아카이브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CAHG는 자금 조달 지원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제공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운영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CAHG가 제공하는 지침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자금제공자에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금제공자가 알고 싶어 하는 공동체의 목표, 계획,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간, 제공자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 공동체 아카이브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찾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전문적인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 자원봉사자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③ 컬렉션 관리

컬렉션 관리 부분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수집 아이템을 잘 관리하는 방법, 카탈로그를 만드는 방법, 종이·디지털·멀티미디어를 보존하기 위해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 디지털 이슈와 전문 장비에 대한 기술적 자문, 위험을 식별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지침은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할 때 출처와 접근권한을 기록하는 것, 컬렉션을 검토·개발하고 보호하는 것, 컬렉션에 대한 접근과 보존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구사항으로 고려할 것 등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를 준비하거나 이미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아카이브 원칙과 실무 내용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위험

요소, 저장 및 보존, 기록관리, 카탈로그 작성 및 정리, 자금 지원, 지속가능성과 아카이브의 이점 등이 있다. 컬렉션 개발 도구 및 지침은 컬렉션 정책문, 획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컬렉션의 격차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침은 소규모의 유산 프로젝트 및 공동체 아카이브에서의 컬렉션 분류를 위해 고안되었다. 컬렉션을 축적하는 지역 문화유산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단체들은 지역기록관이나 박물관 때로는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CAHG는 비전문가인 공동체 아카이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카탈로그 작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기존의 아카이브 표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침을 반영하여 카탈로그를 작성하면서 공동체 기록유산의 공유와 보존이 더 쉬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록을 기증받을 때 기증 동의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록관리 실무인 만큼 공동체 아카이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동의서는 아카이브에 보존, 사본 제작, 재이용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사항도 간략하게 담고 있다. 기록관은 종종 해당 기록의 저작권을 기록관에 양도하도록 요청하지만, 공동체 아카이브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CAHG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증 동의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컬렉션 접근이 개방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컬렉션 정보가 온라인 탐색을 통해 함께 공유됨으로써 자원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은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며 다양한 아웃리치 도구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매하고자 할 때 여러 종류의 많은 시스템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CHAG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전자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매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유용한 정보 출처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¹⁸⁾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공동체 아카이브가 어떤 것을 결정할지 선택하는 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CAHG는 대영도서관이 제작한 온라인 안내 책자를 통해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18) CAHG는 상업용 및 오픈소스 솔루션을 포함하여 아카이브에 대한 CMS(컬렉션관리시스템)와 DAMS(디지털자산 관리시스템) 옵션 목록을 작성하고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날 때마다 업데이트하여 목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주로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록 보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업, 보존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 및 수립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흔한 기록물 유형인 비디오 테이프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구술인터뷰와 관련한 조언¹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2018년에 제작된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보존과 관련한 지침이다.²⁰⁾ UCL(University College of London) 정보학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디지털 객체 및 디지털 보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디지털 보존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이후 단계별 가이드와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④ 컬렉션 접근 설정

CHAG는 공동체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설명하고 계획 및 절차를 다루면서 공동체가 컬렉션 접근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새로운 활동을 계획할 것인지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컬렉션 접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작권이다. CAHG는 저작권, 데이터 보호²¹⁾ 및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 관련 최신의 정보가 있는 주요 링크를 제공²²⁾하고 있다.

햄프셔 아카이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아카이브가 직접 홍보물을 출판하기 위한 포맷에 관한 아이디어, 전시 가이드라인,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활동과 관련한 온라인 · 연구 · 추억 상자 · 워크숍 등과 같은 아이디어, 문화유산복권기금에서 제안하는 문화유산 프로젝트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안내서가 작성된 지 오래되었고 주로 문화유산복권기금 프로젝트를 염두해 두고 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19) 구술인터뷰 시작하기, 법적·윤리적 문제, 구술기록 관리 및 활용 등.

20) 링크를 통해 사본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음. 공동체 아카이브의 디지털 보존에 관한 실용적인 소개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21)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 일반 데이터보호법(GDPR)이 발표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 또한 새로운 데이터보호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됨.

22) 예를 들어, 햄프셔 아카이브의 사진 저작권, 스코틀랜드 아카이브위원회의 아카이비스트를 위한 저작권 개관, 데이터 보호 법안에 대한 CAHG의 지침, 2018년 공동체 아카이브 컨퍼런스에서의 저작권 관련 발표 자료 등이 있음. CAHG는 유럽 일반 데이터보호법(GDPR)이 공동체 아카이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해석하려고 노력함. 2018년 컨퍼런스에서 GDPR에 관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GDPR과 데이터보호, 공동체 아카이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다루었음.

⑤ 코로나 시기의 자원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잉글랜드 사적 위원회(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s Commission for England)²³⁾, 국립 문화유산복권기금, 영국예술위원회는 긴급자금으로 공동체를 돕고자 하였다. 잉글랜드 사적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화유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 기금을 발족시켰다. 기금의 목적은 소규모 문화유산 단체들이 전염병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가능한 한 확장하는 것이다. 국립문화유산복권기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응하여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지원패키지를 제공하였다. 지원패키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긴급자금 제공, 조언 및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예술위원회는 코로나 위기로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개인들이 긴급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과 단체의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금 관련 요구사항을 변경하였다.

CAHG는 코로나 시기를 주제로 수집하고 기록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술사학회가 제작한 구술사 수집, 윤리 및 법적 인터뷰 수행에 대한 최신의 우수한 지침을 링크로 제공한다. 구술사학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 비대면 원격인터뷰와 관련하여 원격인터뷰의 실용성과 윤리에 대한 조언 그리고 몇 가지 기술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대량 관찰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참여형 코로나19 기록화 프로젝트는 공동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경험과 대유행 일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미국 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는 코로나 위기 시대의 기록화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CAHG는 링크를 통해 위기 시대의 기록화 자원 키트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국 전역에서의 락다운²⁴⁾ 상황에서 사람들은 집밖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지역박물관이나 아카이브를 방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밖에서 산책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소셜 미디어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돋보일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CAHG는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여 아카이브로 접근하게 하고 아카이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5가지 팁을 링크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각으로 작성되었지만, 코로나 시기 커뮤니티 기반 아카이브를 지원하는 데 유용한 내용을 링크로 제공하고 있다.

23) Historic England(히스토릭 잉글랜드)로 줄여 부르기도 함. 영국의 잉글랜드를 관할지역으로 두는 문화재관리국. 영국 정부의 비정부공공기관으로서 문화 관련 부처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후원을 받음.

24) 사람들의 이동을 제재하는 '이동제한령', '봉쇄령'.

(3) 시사점

① 공동체 아카이브 ‘지명’ 주체

CAHG 공동체 아카이브 디렉토리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자신을 스스로 아카이브라고 인식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때 등록할 수 있다. 물론 CAHG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동체가 자신과 관련한 원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정의에 근거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디렉토리에 아카이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CAHG가 공동체 아카이브를 찾아서 발굴하여 웹사이트 디렉토리에 추가하는 방식²⁵⁾이 아니라, 공동체 스스로 아카이브를 인식하고 외부와 공유·개방하고자 할 때 디렉토리를 통해 외부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② 다양한 정보자원과의 연계

CAHG 웹사이트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작하고자 할 때, 또는 운영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필요한 도움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은 CAHG가 직접 제작한 것보다 지역 아카이브, 지역 박물관, 관련 협회와 기관, TNA 등에서 작성한 지침, 기준, 체크리스트, 목록 등의 정보들을 CAHG 웹사이트와 링크로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은 목록으로 나열되어 있거나, 플랫폼을 통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가 아니다. CAHG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하위로 내용을 구조화하여 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정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내용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링크를 하나하나 따라가지 않고 소개 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링크를 통한 정보연계로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웹사이트의 문제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보에의 접근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다양한 정보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유산기관과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필요할 만한 지침이나 정보를 문화유산기관에서 파악하고 제공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5) 호주 아키비스트 협회(ASA)의 아카이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아카이브 유형으로 ‘공동체’라는 범주가 포함되어 있음. 공동체 카테고리에 나열된 대부분의 아카이브는 역사학회이지만 공동체 박물관, 지역사선터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를 주업무로 하지 않는 공동체 조직 및 그룹의 아카이브 또한 포함함. ASA가 공동체를 개념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기관이 어떻게 이 범주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음. 호주 적십자 국립 아카이브, 멜버른 공동체 및 기업 등이 다른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③ 지속적인, 최신의 정보 업데이트

CAHG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굴함으로써 웹사이트 정보 구조화와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2018년 유럽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지침 시행이나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 등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 나감으로써 기본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체 아카이브의 대응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가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요구된다.

2. 서비스 지향 플랫폼

영국의 CAHG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은 서비스보다는 공동체 간, 공동체와 문화유산 기관 간, 문화유산기관 간의 네트워크 중심이라면 다음의 사례는 포털과 비슷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거나 아카이브 목록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기록정보서비스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의 플랫폼 사례를 주요 시사점을 중심으로 분석·정리하였다.

1)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구 : 아카이브캐나다.ca²⁶⁾

1990년대 이후 캐나다 아카이브는 전례 없이 성장하였다. 이전과 비교하여 아카이브 수가 5배 증가함에 따른 새로운 도전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전의 협의나 명확한 위임 없이, 목표의 범위와 함축된 의미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서는 더는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및 지역 전문협의회의 결성, 아카이브를 특별히 다루는 보고서의 발간, 연구 발전에 필요한 조건, 일관성 있는 문화정책 수립과 같은 행사들로 기록 공동체는 새로운 태도와 접근법을 갖게 되었다. 심지어 “아카이브”의 개념도 최근 몇 년 동안의 관점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본질적으로 “아카이브”는

26) www.archivescanada.ca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행정효율성을 위한 도구”를 의미하며, 이를 만든 기관과 개인 또는 공동체를 반영하여 문서화하며, 캐나다 연구의 기초이자 더 넓게는 국가의 집단기억으로 볼 수 있다. 이 광의의 개념은 업무와 자원에 대한 더 나은 조정을 암시한다. “아카이브”의 정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실제 기록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록물을 담당, 정리, 기술, 보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001년 10월 20일 캐나다아카이브협의회는 캐나다 전역의 800개 이상의 아카이브 기관의 소장물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캐나다 기록정보 네트워크(Canadian Archival Information Network, CAIN으로 약칭)를 시작하였으며, CAIN으로 알려졌던 이 네트워크는 현재의 아카이브캐나다가 되었다. 캐나다 문화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국립도서기록청의 지원으로 이니셔티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지속해서 성장 중이다.²⁷⁾

“우리는 우리의 역사, 문화, 유산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캐나다 기록 정보 웹사이트와의 파트너십은 캐나다 참고자원을 만드는 데 공헌하며 공유 가치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카이브캐나다는 캐나다아카이브협의회(Canadian Council of Archives, CCA로 약칭)²⁸⁾가 관리하는 공식 아카이브 포털로, 주와 준주 아카이브 네트워크²⁹⁾, 캐나다 국립도서기록청(Library and Archives Canada, LAC로 약칭)의 공동 이니셔티브이다. 주의회와 준주의회와 그 구성원, LAC에 의해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기록 설명과 링크가 제공된다.

아카이브캐나다.ca 포털(아카이브캐나다로 약칭)은 국가적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캐나다 전역의 개별기록물관리기관(기록문서, 지도, 사진, 음성기록, 비디오 등)이 정기적으로 소장물의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지방 및 관할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27) 아카이브캐나다는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캐나다 역사협회, 지방 및 관할지역 아카이브위원회, 아키비스트전문가협회의 노력으로 승인됨.

28) 캐나다아카이브협의회는 기록시스템의 관리, 효과 및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캐나다 기록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보존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캐나다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회원인 기록조직을 지원 및 보조함으로써 캐나다 기록시스템 내에서 리더십을 제공하고 발전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지방 및 관할지역 위원회와 협력하여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부서와 기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캐나다 사회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캐나다 도서관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포함한 캐나다 기록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29) 캐나다는 13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나라임. 각 주에는 주의회, 주정부, 주총리가 있고,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음. 준주는 주의 자격을 얻지 못한 행정구역을 말함.

아카이브캐나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 기록정보를 통해 캐나다, 기관, 국민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카이브캐나다는 크게 검색, 네트워크, 가상전시, 링크, 아카이브캐나다 소개, 캐나다아카이브협의회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정보는 기록기술(Archival Description), 전거레코드, 기록물관리기관, 주제, 장소, 디지털 객체로 검색할 수 있다. 기록기술로 검색할 때, 상위 수준의 기술만 제공한다. 언어, 기록물관리기관, 생산자, 이름, 장소, 주제, 기술 수준(description level)³⁰⁾, 매체 유형 등으로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상세검색 옵션에서는 검색창에서 새로운 검색 기준을 추가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와 최상위 수준의 기술로 검색 결과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으며 일반검색보다 기술 수준이 조금 더 다양하다. 이용자는 검색 결과를 통해 이용 가능한 디지털 객체 여부, 검색도구, 저작권 상태, 자료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날짜로 필터링할 수 있다.

아카이브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의 가정, 학교,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캐나다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캐나다 전역의 800개 이상의 아카이브 자원을 지원하는 게이트웨이이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기록자료에 대한 기술검색, 디지털 이미지 찾기, 가상전시 방문, 각 지방 관할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 검색,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포함한 기록물 검색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캐나다 기록유산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포털이다. 아카이브캐나다의 목적은 캐나다국민들이 나라의 기록유산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 프로그램 시작하고 지원함으로써 아카이브의 관리, 숙련도, 역량, 그리고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아카이브캐나다는 지방과 관할지역 위원회나 개별 아카이브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가상전시 또는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링크를 제공한다. 참여 기관에 대한 링크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검색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

아카이브캐나다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록콘텐츠를 만들어서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진행형 프로젝트로 기록콘텐츠를 통해 캐나다의 풍요로운 과거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영국의 CAHG 사례는 각 공동체의 소속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공동체 기록이 이용되고 공동체가 각자 필요로 아카이브를 구축해가는 것과는 달리, 아카이브캐나다는 CCA를 중심으로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캐나다 전역의 기록에 대한 접근 및 활용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30) Fonds, Collection, Item, File, Series, Accession, Subfonds, Part, Record Group.

2) 공평한 자료 접근과 협업 :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DPLA로 약칭)은 대규모 공공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공 접근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프로젝트이다. 2.5년간의 개발 끝에 2013년 4월 18일 공식적으로 런칭한 DPLA는 미국의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유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 도메인 및 공개 라이선스 콘텐츠를 위한 검색도구 또는 조합 카탈로그이다.

“우리는 미국인인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디지털 형식의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것은 도서관을 대체하려는 계획이 결코 아니라, 모든 유형의 도서관과 후원자들을 위해 공동의 자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존 팰프리(버크만 센터의 공동 책임자, 2011년)

DPLA는 자신과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는 16개의 콘텐츠 허브뿐만 아니라 12개의 주요 주 및 지역 디지털 도서관 또는 도서관 협력을 포함한 서비스 허브를 연결한다. 2013년 4월 DPLA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광범위한 기반 팀이 조직되었으며, 같은 해 6월 DPLA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HathiTrust³¹⁾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전략 로드맵 2019–2022’는 지식에 대한 모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전역의 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박물관이 관리하는 문화와 지적 재산을 단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자 관문으로서의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업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PLA의 비전이다. DPLA는 2013년 비영리단체인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문화유산 네트워크와 전자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비전을 현실화하고자 했다. 41개 주를 대표하는 파트너 네트워크, 4,000개 이상의 기증기관, 자유롭게 발견할 수 있는 3,000만 개 이상의 아이템과 함께, DPLA는 사진, 지도, 뉴스 화면, 구술사, 원고 문서, 예술품 등 국가의 디지털 문화유산 자료에 접근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31) 미국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결성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보유 장서를 스캔, 디지털화하여 보존함으로써 도서를 반영구적으로 저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정보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한다. DPLA는 모두가 자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협력하여 새로운 도구를 탐색하고 테스트하여 도서관과 문화단체들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PLA는 파트너십과 디지털 기술에 의한 지식의 유통과 활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모든 미국인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작업은 일개 도서관이나 위원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협업을 통해 진행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전략적으로 균형이 있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공동체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다.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컬렉션을 통합하기 위한 DPLA의 첫 번째 계획은 문화유산 네트워크 및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 솔루션을 위해 협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DPLA는 더 공평한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과소 평가되고, 과소 대표된 단체와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기존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와의 협력으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컬렉션과 이야기를 수집하고 홍보할 수 있다. DPLA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경험을 대변하는 공동체 기반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자 한다.

DPLA의 문화유산 통합 서비스는 모두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다양한 기관과 공동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식을 넓히고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DPLA는 도서관과 문화유산 기관들이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DPLA의 핵심적인 업무일 수밖에 없으며, 허브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그리고 여타의 문화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 그리고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네트워크는 더욱더 필요하게 되며 다양성이 요구된다. 특히 각 영역에 걸쳐 교차할 기회를 찾고 모든 문화유산 기관들에 혜택이 돌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DPLA는 이러한 작업이 협업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믿으며, DPLA와 함께 협업하는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DPLA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식을 유통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전달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자 한다.

3) 오픈소스 기반, 메타데이터 공유 : 뉴질랜드 DigitalNZ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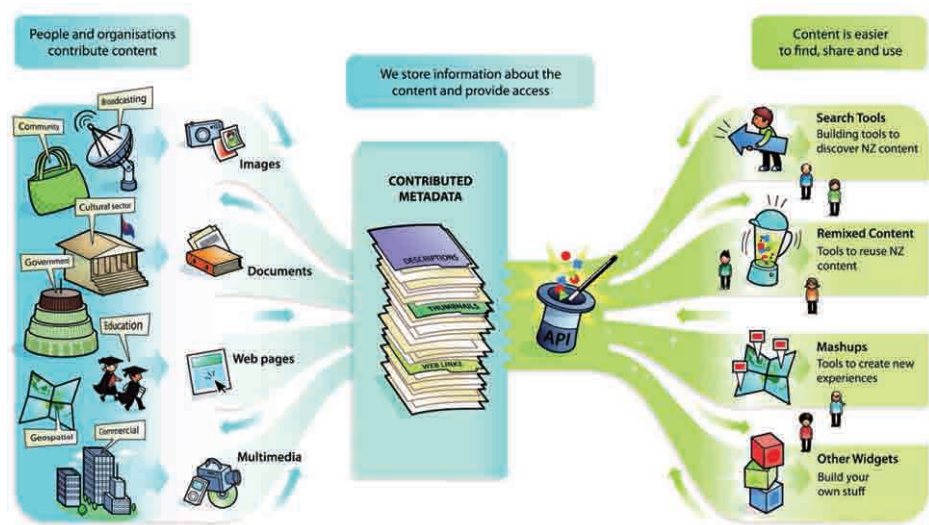
2008년 12월 3일 공식 출범한 DigitalNZ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질랜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공공 웹사이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이 운영하고 뉴질랜드정부가 뉴질랜드 관련 디지털 미디어를 호스팅하는 서비스이다. 뉴질랜드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더 쉽게 찾고,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메타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제공된다. 서비스 협력 기관으로 도서관, 박물관, 갤러리와 같은 문화기관, 정부 부처, 공공 기금 기관, 교육 및 연구 기관, 민간 부문 및 공동체 그룹이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뉴질랜드 관련 콘텐츠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 현재 200개 이상의 조직을 출처로 하는 3천만 개 이상의 디지털 아이템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완전한 검색이 가능하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2019년 기준). DigitalNZ에서 검색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는 사진, 예술품, 신문, 지도, 오디오, 비디오를 포함한다. 직관적인 검색과 필터를 사용하여 DigitalNZ를 쉽게 탐색할 수 있으며 저장하기도 쉽다.³³⁾ 저장 기능은 ‘스토리’라고 불리며, ‘스토리’를 사용하면 정보를 그룹화하고 제목과 텍스트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주제에 대한 ‘스토리’를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만든 ‘스토리’는 친구, 가족, 학급 친구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DigitalNZ 파트너들의 공헌으로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의 영향으로 DigitalNZ는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다.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계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확보되어야 한다. ‘Make it Digital’ 사이트³⁴⁾는 디지털화 작업을 지원하고 디지털화 우수 관리기준과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토론 및 투표할 수 있게 한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거나 디지털화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공동체가 디지털화를 테스트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http://digitalnz.org/>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33) 2019년 4월, DigitalNZ 매니저인 피오나 필센드가 RNZ와 DigitalNZ에 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함.

34) <http://digitalnz.org/make-it-digital>



〈그림 1〉 DigitalNZ 통한 뉴질랜드 관련 디지털 콘텐츠 공유 · 이용
(출처 : DigitalNZ 웹사이트)

DigitalNZ는 프로그래머들이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API 접근을 제공한다. DigitalNZ는 한편 메타데이터와 콘텐츠의 재사용과 허용된 권한 하에서 리믹스를 장려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 관리에 대한 교육 가이드를 제공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지원함으로써 재사용과 리믹스를 위해 제공자들이 콘텐츠를 개방할 것을 권장한다. 즉, DigitalNZ는 콘텐츠 자체를 호스팅하기보다는 메타데이터의 집합체로서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고 개방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DigitalNZ 웹사이트는 오픈소스 데이터 집합 플랫폼인 Supplejack에 의해 구동된다. Supplejack은 뉴질랜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집계하여 이 콘텐츠가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 DigitalNZ는 Supplejack API를 통해 다른 조직에 이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³⁵⁾를 통해 다른 조직에 Supplejack 플랫폼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데이터 컬렉션을 결합하고, 공유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뉴질랜드 정부의 2007년 디지털 콘텐츠 전략에서 시작된 Supplejack은 2013년에

35)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됨.

이르러서 활발한 생산 서비스가 되었다.³⁶⁾

DigitalNZ의 API는 NZ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API는 개발자가 간단히 당사 사이트에 연결하고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DigitalNZ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igitalNZ는 공동체 그룹, 문화 부문, 정부 부서 등을 포함하여 아오테아로아 주변의 20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메타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메타데이터는 비디오, 이미지, 지도 및 데이터와 같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료를 설명하며,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는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DigitalNZ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설명, 라이선스 부여, 저장, 표면화 및 공유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여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PI 외에도 Supplejack을 통해 뉴질랜드 관련 컬렉션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한다.

III. 결론

국가기록원은 민간영역의 공동체와 단체의 다양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을 시작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공동체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빙 활동을 지속해서 촉진·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민간아카이브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은 민간아카이브 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민간분야 기록관리와 관련한 정보, 아카이빙 활동 성과물을 등록·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동체와 민간단체의 아카이브가 스스로 아카이브로 인식하고 기록을 공유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 공동체와 민간단체는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속감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와 단체를 인정하고 소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은 공동체 및 민간단체 아카이브와 국가기록원 등의 주류 문화유산 기관 상호 간 이익과 협업에 기반해야 한다. 이때, 주류 문화유산 기관은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36) 2016년 Supplejack은 뉴질랜드 오픈소스상을 수상. DigitalNZ 및 국립도서관과 함께 Supplejack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Nga Taonga 시청각 아카이브, 온타리오의 아워디지털월드(OurDigitalWorld)와 브리티시컬럼비아 도서관 협회(British Columbia Library Association)의 캐나다 합작품인 태평양 가상박물관 웹사이트(digitalpasifik.org)를 포함한 GLAM 부문 단체에 채택됨.

- 플랫폼은 공동체와 민간단체 아카이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체와 민간단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는 공동체와 민간단체 기록정보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성과 기록정보 공유에 기반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 공동체와 민간단체가 플랫폼에서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은 민간분야 공동체와 단체의 주요 사업정보, 보유기록물 목록, 웹페이지 및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민간 아카이브 및 기록 활동 정보, 통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와 민간단체는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함으로써 공동체와 단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홍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외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플랫폼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향후 구축·운영될 기록정보 공유 플랫폼은 국가기록원이나 지역 기반 기록물관리기관 등이 공동체와 민간단체의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과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손동유,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호, pp.89~108, 2020.

안대진 · 임진희,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 연구」, 『기록학연구』 52호, pp.119~177, 2017.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8호, pp.225~264, 2013.

이경래,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호, pp.3~39, 2013.

임신영 · 이혜원,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30호, pp.17~41, 2021.

최재희, 「해외 민간문화 아카이브 동향」, 『제5회 전국기록인대회 자료집』, 2013.

Leisa Gibbons, "Community Archives in Australia: A Preliminary Investigation", Journal of the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Vol. 69, No. 4, 2020, pp.451~472.

단행본

Rebecca Sheffield, Heather MacNeil and Terry Eastwood, "Community archive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nd ed., Libraries Unlimited, 2017.

웹사이트

뉴질랜드 DigitalNZ <http://digitalnz.org/>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및 문화유산 그룹 www.communityarchives.org.uk

캐나다 아카이브캐나다.ca www.archivescanada.ca

호주 아카이브 디렉토리 <http://directory.archivists.org.au>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기획

-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김주연 학예연구관(yjkim0@korea.kr / 경제기록과)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설계와 실행
 - 1. 전시 기획 배경
 - 2. 아카이빙 전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 III.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 내용 분석
 - 1. 동남아시아 아키비스트들과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 2. 미국 아키비스트들과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 3. 일본 아키비스트와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 4. 과학자, 고고학자, 예술가, 지인들과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 IV. 마무리

요약

필자는 고재욱 작가의 Cross - Platform 전시에 참여하여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는 큐레이터가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전시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전시 기획자이자 전시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및 미국의 아키비스트, 과학자, 예술가,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 지인 등 12개국 20여 명의 참여자들에게 필자(김주연)의 사진을 실제 크기로 출력하여 해외로 보내면 현지에서 지인들이 필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여 필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가 촬영장소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촬영한 장소와 장소에 담긴 특별한 의미, 함께 촬영한 사람들, 촬영한 시간 등 사진 한 컷에 담겨진 시공간의 스토리를 함께 아카이빙 하였다.

특히,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매개로 참여자들과 소통하면서 참여자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컨셉을 구상하는 전시 기획자이자 사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큐레이터와 참여자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하였다.

향후 아카이브 전시 분야에서 관람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 전시 놀이터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이 ‘아카이브를 만나고 아카이브와 놀고 아카이브를 퍼뜨리도록 하는’ 참여형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I. 들어가며

코로나 상황의 언택트 시대에 예술 분야에서는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2021)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미술계를 활성화하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온라인 전시를 개최하였다. 바로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이다. 작품 가운데 박민 작가의 ‘수용유희: 컨택트’는 팬데믹 상황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작품 안에서 언택트의 방법으로 컨택트 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민들이 온라인(인터넷)으로 보낸 자신과 살고 있는 집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작가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시민들과 강북구의 풍경 모습을 시민과 함께 그려낸 사진 평면 설치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대중의 직접적인 컨택 없이 다른 방식의 컨택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방식의 교류방법(컨택트)을 만들어내고 있다.¹⁾

샌프란시스코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참여자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스토리 프로젝트(Story Project)’를 진행하는데, 이는 참여자의 창조적인 과정을 포착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

예술 분야의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아카이브 분야에서도 언택트 시대에 대중들과 컨택할 수 있는 사례로 필자가 2018년에 고재욱 작가의 Cross-Platform 전시에 참여한 예술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고재욱 작가는 미술에 대한 작가와 일반대중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사회 시스템의 빈틈을 관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³⁾ 그는 큐레이터가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전시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관람객이 전시 기획자이자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시를 희망한다.

특히, Cross-Platform 전시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존재이며, 참여자의 역할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작품에 다양하게

1)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p.103, 2021.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

2)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현대 미술관”, arte365 홈페이지(www.arte365.kr) ; 경기연구원, 「경기도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방안」, pp.82~83, 2018.

3) 〈Works〉-On your Mark 프로젝트(2009~), Welcome to Coesfield 모큐멘터리 단채널 비디오 6분 30초(2010), What made me like this 모큐멘터리 단채널 비디오 9분 30초(2013), Karaoke Box(2013), DIE FOR-you can sing but you can not(2013), Naver let me go 프로젝트(2013), Rentable Room 프로젝트(2014), Karaoke house(2015), ERIC ARTHUR BLAIR(2015), DIE FOR(2016), Like a family(2016), 오빠생각(thing of elder brother)(2016) 등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작업을 진행 중이다. <http://www.jaewook.com>

참여함으로써 작가와 관객, 관람자와 참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새로운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⁴⁾

Cross - Platform 전시는 11개의 주제가 어우러진 공동 전시공간이다. 1년 동안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신청받은 70여 개의 주제 중 1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상상력을 대신 구현해준 프로젝트이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에 ‘Beyond Space, On Your Mark’를 제안하여 8번째 주제로 선정되었다. ‘Beyond Space, On Your Mark’는 국제 기록관리교육 운영과정에서 만났던 동남아시아 아키비스트, 미국 출장길에서 만난 아키비스트, 예술·과학 분야의 페이스북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새롭게 만들고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의 사진을 실제 크기로 출력(등신대 브로마이드)하여 해외로 보내고, 현지에서 그 사람들과 찍은 또 다른 사진을 되돌려 받는 프로젝트이다. 참여자들이 필자가 제안한 아카이빙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자의 스토리를 창작하고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한 전시 콘텐츠를 필자에게 다시 송부함으로써 ‘Beyond Space, On Your Mark’의 전시를 완성하는 것이다. 즉, 기획자이자 참여자의 역할을 한다.

필자는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에서 2015년 국가 기록원의 국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남아시아(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키비스트, 미국 출장길에 만난 미국의 아키비스트, 남아공의 비치 켈리그라퍼, 독일의 고고학자, 일본의 대학 아키비스트, 영국과 중국에 머물고 있는 지인들 등 총 12개국 20여 명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다시 연결되고픈 강력한 바람을 실현하였다.

2장에서는 참여대상을 선정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시 설계와 실행 내용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생산한 전시 콘텐츠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아카이브 전시 분야에서 포스터 디지털 매체시대의 특징인 예술과 관람객 간의 경계 허물기의 가능성을 살펴 본 것이다.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로스 플랫폼』, pp.15~16, 2018.

II. 참여형 아카이브 전시설계와 실행

1. 전시 기획 배경

필자는 고재욱 작가의 For Workers 테미레지던시 전시 오픈 파티에 참석하여 그가 전시프로젝트로 추진했던 On your Mark 전시 내용을 전해들었다. On your Mark 전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묶여있는 나 대신 나의 대체물(아바타)이 세계 곳곳, 지인 혹은 지인의 친구들과 함께 지인들이 소중한 장소에서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시간과 공간과 공간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즉, 관람객에게 전시 기획자이자 참여자라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재욱 작가는 그의 작가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On your Mark 전시를 설명하였다.

“남는 것은 사진 밖에 없다. 흔히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곤 한다. 사람의 기억으로 그 순간을 변형 없이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 순간을 박제하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물리적으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면, 나의 사진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나의 실제 크기로 출력된 사진을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그들이 내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 그렇게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게 된다. 사진을 남긴다는 행위는 그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다는 욕망의 발현이라고도 생각된다.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유대를 만들기 위해, 어쩌면 장난스러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2015년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남아 5개국 교육들을 배웅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 나라에 꼭 한 번 방문하고 싶다’고 약속을 했었다. 그 약속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지인들과 미국 SAA(아키비스트 연례회의) 출장길에 만난 아키비스트들과 의미있고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면 그들의 소중한 장소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공간과 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문 전시이다. 우선, 공간과 거리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폐친으로 제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분야의 아키비스트와 지인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문 전시를 기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소 선정 및 스토리 구상 방식은 기록물 기술요소로 시간, 공간, 스토리라는 3요소를 선정하여 참여자들이 큐레이터(필자)의 전시주제를 이해하고 사진을 도구로 일상생활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시·공간을 공동으로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2. 아카이빙 전시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 프로젝트 추진 단계 및 일정

순서	단계	주요 내용	일정
1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 메일 발송 - 3년 전 국제교육과정 참여자들(동남아 5개국) - SAA 출장에서 만난 미국 아키비스트 - 외국에 거주 중인 지인들과 참여신청자들	'18.7.23. ~ 8.31.
2	매뉴얼 제작·배포	- 브로마이드 제작 및 프로젝트 매뉴얼 제작 - 브루마이트 및 매뉴얼 배포(발송)	'18.8.1. ~ 9.12.
3	사진 수집·정리	- 메일로 받은 사진 자료 정리, 목록 색인, 사진인화 등 (사진 메타데이터 정보 정리) - 각 사진별 장소, 시간, 사람 메타정보들 정리	'18.9.17. ~ 10.10.
4	오프라인 전시회	- 사진 인화, 액자 제작 등 전시물 제작·설치(10.10.~10.16.) - 1차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10.17.)-인사미술공간 - 2차 오프라인 전시회 개최(11.26.)-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10.10. ~ 11.30.
5	전시 마무리	- 참여자들에게 전시 도록 제공 - 전시 추진 현황을 내용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달함 - 전시 참여 감사 인사	'18.10.10 ~ '20.1월

1) 참여자 모집 및 참여자 선정(2019. 8. 7.~)

먼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페이스북의 동남아시아, 미국의 기록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페이스북 친구(폐친)에게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참여대상을 모집하였다.

다음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cintamanijykim>)에 게시한 프로젝트를 소개 내용이다.

〈Beyond space, On your Mark〉 art project. I planned the "Beyond space On your Mark" art project. If you have any messages, please do not be surprised. It is a fun project, and we plan to work together with offline exhibitions. It's okay to answer No, but be yourself an artist. If you OK, Please let me know your address to receive my photo and project manual. This project, About 20 people will be participate together based on Facebook friends and acquaintances living abroad.^ * It is organized by artist 고재욱(Jake Jaewook Koh)	
페이스북에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 소개, 참여자 모집	페이스북 게시 화면

	
미국 아키비스트 Rose Austin 참여의사	Andrew의 참여의사

페이스북에 게시한 결과, 참여자는 지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및 미국의 아키비스트 등 12개국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2)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첫째, 사진 촬영 및 필자의 브로마이드를 제작하였다.

2018년 8월 22일, 테미아트레지던시에서 브로마이드를 제작하기 위해, 필자를 모델로 박용화 작가의 사진 촬영, 고재욱 사진 편집 과정을 거쳐 인쇄소에 브로마이드 제작을 요청하였다.



박용화 작가의 사진촬영 셋팅 모습



고재욱 작가의 등신대 브로마이드 사진 편집 장면

둘째,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먼저, 브로마이드 사진촬영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고재욱 작가와 테미아티스트 레지던시(최창희 팀장 외 직원들) 직원들이 시범 촬영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의 촬영장소, 시간, 사람들, 장소에 관한 이야기 등을 기술하는 방식을 작성하였다.



- Date : 2018. 9. 7.(Fri)
- Place : Temi Artist Residency
- Story : Temi is a valuable place to enjoy interesting exhibitions. This is a place for re-engineering new perspectives on objects and art. So it is a favorite place.
- People : ChangheeChoi, JaeuwookKo and The Steps in Temi Art Residence. When I sent a message to Choi Chang-hee that I wanted to visit you once, He said, "yes" And he kindly guided me on the exhibition tour. Since then, I have become his fan. I'm always thankful.
- Descriptor : Jooyeon Kim

다음으로 프로젝트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매뉴얼은 브로마이드를 개봉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필자에게 메일로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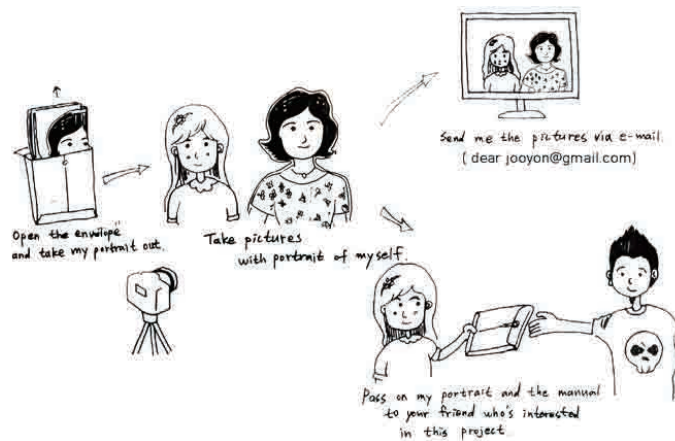
〈Beyond space, On your Mark〉 project

작가(김주연)의 등신대 브로마이드 사진을 다른 사람(지인, 혹은 지인의 친구들 등)에게 보내, 공간을 넘어서 작가가 그들과 함께 사진 찍혀 돌아오는 프로젝트입니다.

〈Beyond space, On your Mark〉 project는 작가(김주연)의 포트레이트 사진을 작가가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작가에게 소개하고픈 그들의 소중한 장소(기록관, 박물관, 뮤지엄, 유적지 등)에서 그들과 함께 사진 찍혀 디지털 파일로 돌아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과 이야기를 함께 아카이빙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 시키는 것은 온전히 참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아트 프로젝트는 고재욱 작가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연입니다. 저는 환경적인 제약으로 제가 갈 수 없는, 여러분이 있는 공간으로 저의 사진 이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념하고 싶으신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찍어 주세요. 당신이 계신 곳이든, 당신이 이웃과 함께든, 당신이 사시는 곳의 유명한 장소(기록관,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관광지 등)든 어떤 한 곳이든 상관없이 당신의 소중한 장소에서 저의 사진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dearjooyon@gmail.com)로 보내주세요. 각 사진마다 “장소, 시간, 이름(사진속 인물)”도 함께 알려주세요.

당신이 찍어 주신 사진은 우리 작품의 일부분이 될 것이며, 우리들의 작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공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참여자이자 작가로서 이 아트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신 다음에 저의 사진과 이 매뉴얼을 주변에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 하는 지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 프로젝트가 끊어지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의 포트레이트와 함께 매뉴얼이 들어 있는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dearjooyon@gmail.com 으로 알려주세요.

〈Beyond space, On your Mark〉 project 참여 매뉴얼

셋째, 브로마이드를 발송하고 프로젝트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먼저, 브로마이드를 개별 패키징하고 제작한 프로젝트 매뉴얼을 작은 상자에 넣어 프로젝트 패키지를 만들었다. 정부대전청사 우체국에서 프로젝트 패키지를 참여자들에게 발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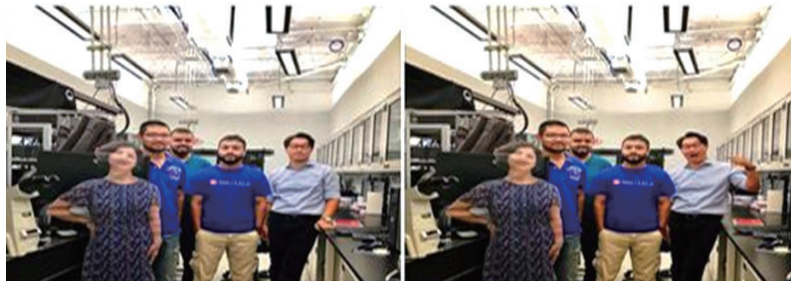
다음으로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고 페이스북에서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3) 사진 수집 · 정리 및 참여자별 파일 작성

참여자들에게 10월 10일까지 촬영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9월 17일에 전체 공지메일을 발송하였다. 참여자들이 9월 20일부터 촬영한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하였다.

Date: 2018. 9. 19 (Wed)
Place: Biological Actuation, Sensing, and Transport (BAST) Laboratory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tory about place: The #BASTLab is located on SMU's East Campus, in which 2 postdoctoral fellows, 8 PhD students, and 3 undergraduate researchers are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new types of nano biotechnology such as nano/microrobotics and nanopore technology.
People: Jiannan Tang, Dr. Nuwan Bandara, Jugal Saharia and ... 더 보기



(예시) 9월 20일에 김민준이 보내온 사진들이다.

보내오는 사진을 참여자별로 앨범에 정리하였고, 별도의 전시 해석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진 기록물 기술내용을 정리하여 『Beyond Space, On your Mark 프로젝트 참여자들 프로필 및 사진 설명자료』의 별도파일을 만들었다. 이 파일 역시 전시 연출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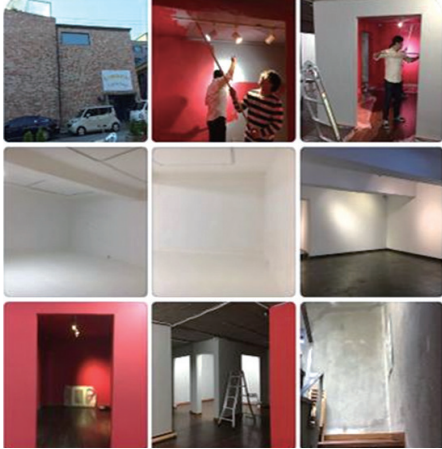
Beyond Space, On Your Mark 프로젝트 참여자들 프로필 및 사진 설명 자료



프로젝트 참여자들 프로필 및 사진설명 자료 파일

참여자별 파일들(참여자, 참여자와의 관계, 사진 내용의 순서로 정리하여 1인별 아이템으로 정리함)

참여자들에게 전시장 설치 현장과 전시기획 진행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시 진행상황을 전달하였다.

  전시기획 회의 모습, 참여자들에게 전시 진행현황을 설명하는 영상 제작	 전시장 설치현장, 전시를 위한 페인팅 모습
---	---

10월 8일, 참여자들에게 프로젝트 참여 소감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베트남, 필리핀, 미국의 참여자가 영상을 보내왔으며, 전시연출에 활용하였다.

 Hi, I made a short clip. Could you check if it's OK? Wow 🥰🥰🥰 Thank you very much!! 베트남의 Tran viet, 10. 10. 3:04p.m.	 Here is a video from the trip taken on Monday. 🥰🥰🥰🥰 Thank you!! Your self and we are amazing Oh, I am glad this went through. They are loading very slowly! Just having fun! 미국의 Rosemary Austin, 10. 10. 0:31a.m.	 Wow!! thank you!! 필리핀의 Rimmel 10. 18. 6:38p.m.
---	--	--

4) ‘Beyond Space, On Your Mark’ 전시회 개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12개국 20여 명의 지인들과 함께 ‘사진 아카이브(사진 200여 점), 작업 진행과정을 담은 프로젝트 작업 일지, 참여자 목록 및 사진 설명 파일, 영상 편지,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아카이빙하였다.

이러한 아카이빙 결과물은 인사미술공간의 고재욱 아티스트의 개인전 ‘크로스 플랫폼’(10.17.(수)~11.14.(수))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Beyond Space, On your Mark 〉

- 전시 주제 : 당신의 소중한 시공간을 아카이빙하다.(Beyond Space, On your Mark)
- 전시 내용 :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국내라는 좁은 세상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해외의 지인들과 연결되고픈 강력한 바램을 구현한 것으로, 필자(김주연)의 사진을 실제 크기로 출력하여 해외로 보내고 현지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다른 사진을 되돌려 받는 프로젝트로 12개국 2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이며, 모든 작업과정을 아카이빙함.
- 전시콘텐츠 : 사진 아카이브(앨범) : 1권(사진 200여 점), 사진 아카이브 기술서(photo Description) 2권, 프로젝트 운영 다이어리 1권, 등신대 브로마이드 1점
- 전시 공간 : 인사미술공간 2층
- 전시 기간 : 10.17.(수)~11.14.(수)
- 전시형태 : 고재욱 작가의 “크로스 플랫폼” 중 8번째 소주제이며, 공통 전시공간에서 아날로그 형태로 전시

고재욱 작가와 전시장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시 연출은 관람객들이 아카이빙 자료를 직접 찾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벽면에 사진 액자를 걸지 않고, 사진 아카이브 앨범 1권을 전시공간 중앙에 배치하였다. 사진 아카이브 기술서 2권과 프로젝트 운영 다이어리 1권은 벽면 선반에, 관람객들이 전시공간으로 들어서면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에 프로젝트의 핵심 콘텐츠인 등신대 브로마이드를 설치하였다.



전시장을 찾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지희 아키비스트와 전시관람 소감을 인터뷰하였다.

	Lee gee Hi Archivist from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aid the exhibition was interesting. She told me that she was especially fascinated by the magic of photography. She gave us an exhibition interview. 	
이지희 아키비스트와 기념 촬영	전시관람 소감 인터뷰(영상촬영)	아카이빙 작업 파일과 사진 아카이브를 직접 보고 있는 장면

“좋은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시기획자 본인의 아바타가 전세계를 다니면서 참여자들과 함께 등신대 사진을 촬영하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흥미로웠습니다. 아카이브 관점에서 사진 아카이브를 넘겨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하고 등신대와 아카이브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파일을 보여주고, 직접 넘겨볼 수 있도록 한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 관람객들의 전시관람 모습이다. 사진앨범을 넘기면서 세계 각국의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을 꼼꼼히 살피고, 프로젝트 진행일지와 사진 아카이브 기술서를 유심히 읽고 있다.

Visitors viewing photo archives

<Beyond Space, On your Mark >



이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는 2018년 ACC 창작 공간네트워크 레지던스시티에서 '저항, 기억, 관계'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총 47명의 전시 기획자와 작가가 참여하였다. 이번에 전시 연출 방식은 사진 아카이브를 인화하여 100여 개의 사진액자를 벽면에 걸고, 전시 참여 소감을 보내준 Ms. Tran viet, Ms. Rosemary Austin, Mr. Remmel의 영상자료도 함께 상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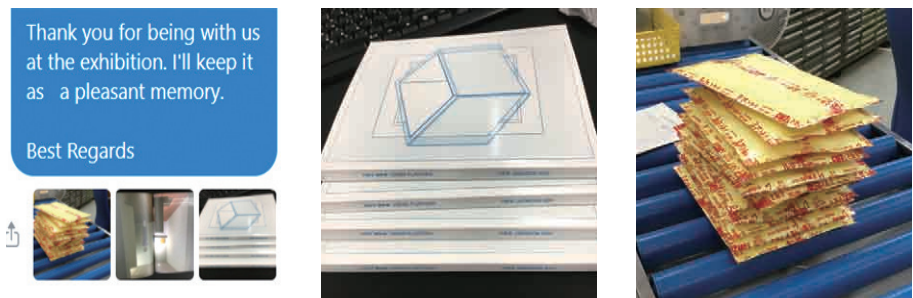
관람객들은 등신대 브로마이드와 기념 촬영, 각국 참여자들이 촬영한 다양한 장소와 스토리, 인터뷰 영상을 흥미롭게 관람하면서, 특히 Beyond Space, On your Mark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궁금해 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 연출한 모습

5) 전시회 마무리

이번 전시 프로젝트에 공동 작업한 참여자들에게 <전시 도록>을 보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시 현장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공유하였다.



프로젝트를 공동 작업한 참여자들에게 전시도록을 보내고 감사 인사

III.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 내용 분석

1. 동남아시아 아키비스트들과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국가기록원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들에게도 국제기록관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선진기록관리 노하우와 우수한 기록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제기록관리 교육과정 가운데, 2015년 코이카와 공동운영한 『국제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에 참여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아키비스트들과 아카이빙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였다.⁵⁾



동남아 각국별 기록관리 운영 사례 발표(2015.5.1.)



경주 양동 마을 답사(2015.4.27.)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베트남 아키비스트 Hoa Tran viet와 그녀의 동료들, 필리핀 아키비스트인 Rimmel G. Talabis와 그의 동료들, 캄보디아 아키비스트 KV neath, 미얀마 아키비스트 Yemin Tan과 그의 동료들, 베트남 아키비스트 Vu Van Phu, 미얀마 국립도서관 아키비스트 Mark Lay와 그녀의 동료들, 인도네시아 국가 기록원 아키비스트 Aria Maulana와 그의 동료들, 라오스 국가기록원 아키비스트 Boubolay Ch와 그의 동료들’이다.

그들은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각 필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여 필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일자, 장소, 참석자’에 관한 내용을 아카이빙하였다.

5) 김주연·조영주, 『국제 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의 운영현황과 과제』, 『기록인』31호, pp.60~66, 2015, 국가기록원.

1) 베트남 아카비스트 Ms. Hoa Tran viet와 그녀의 동료들

Ms. Hoa Tran viet는 베트남의 국제교류협력 분야 전문가이며 이번 프로젝트에 흔쾌히 참여하였다. 그녀는 필자에게 베트남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센터 No.3의 전시관, 서고, 시청각 센터 등을 소개하였고, 베트남 국가기록원 아카이브 센터 No.3을 소개하는 짧은 클립 영상을 보내왔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촬영한 사진을 받음



Hi, I made a short clip.
Could you check if it's OK?

18. 10. 10. 오후 4:25

베트남 아카이브 센터 NO.3 소개 short clip



Ms. Hoa Tran Viet와 그녀의 동료들, 베트남 기록원 아카이브 센터 No.3의 전시실 · 서 등을 소개함

2) 필리핀 아카이비스트인 Mr. Remmel G. Talabis와 그의 동료들

Mr. Remmel G. Talabis는 아카이비스트라는 자긍심과 기록관리에 대한 열정을 지녔다. 필리핀 국가기록원의 사무총장실 앞, 필리핀 호텔 보이스카웃 앞, 비건 시 (Crisologo Street, Vigan), 전시관 등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였다.

다음 사진은 Mr. Remmel G. Talabis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필리핀 국가기록원의 사무총장실 앞에서 촬영한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마닐라 비논도에 있는 예전 사무실의 화재로 최근에 이 건물로 이사했으며, 뒤쪽 흉상 조각이 필리핀의 국가 영웅 Dr. Jose P. Rizal라고 소개하였다.



• 일시 : September 20, 2018, Thursday, 5:03p.m.

• 장소와 스토리

- 장소 : National Archives of the Philippines, 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6th Floor PPL Building, United Nations Avenue corner San Marcelino St., Paco, Manila
- Story : This photo was taken in front of the office of the Executive Director. This area is also the office space for the Executive Offices staff. We have just recently moved in this building due to the fire that hit our former office in Binondo, Manila on May 28, 2018.

• 참여자들과 스토리

- 참여자들 Rom left to right : Wilson Cabiles, Ehxia Dondonilla, Remmel Talabis, Jooyeon Kim, Maita Abunales (OIC, Personnel), Marynissa Espiritu, Jocelyn Reyes (Chie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Division), Lydia Talabis, Consuelo Ortiz, Rowena Landingin, Kolyn Kaye Lao.
- Story : Everyone gathered when I showed them the lifesize photo of the Jooyeon. Everybody was just too happy to join in the photo. The bust sculpture behind is that of our National Hero Dr. Jose P. Rizal.

3) 캄보디아 아키비스트 Ms. KV neath

Ms. KV neath는 영국에서 크메르 의식에 참여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10월 6일, 영국 아마라바티 수도원에서 열린 크메르 전통 의식인 Pjom Pen day에 참여하였으며, 이 의식은 매년 스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조상에게 혜택을 바치기 위해 거행된다고 설명하였다.



· 일시 : October 6, 2018

· 장소와 스토리

– 장소 : Amaravati monastery in the UK.

– Story : I was join with the Khmer ceremony.

Ms Vuthyneath sent me yesterday. She allowed me to put pictures on Face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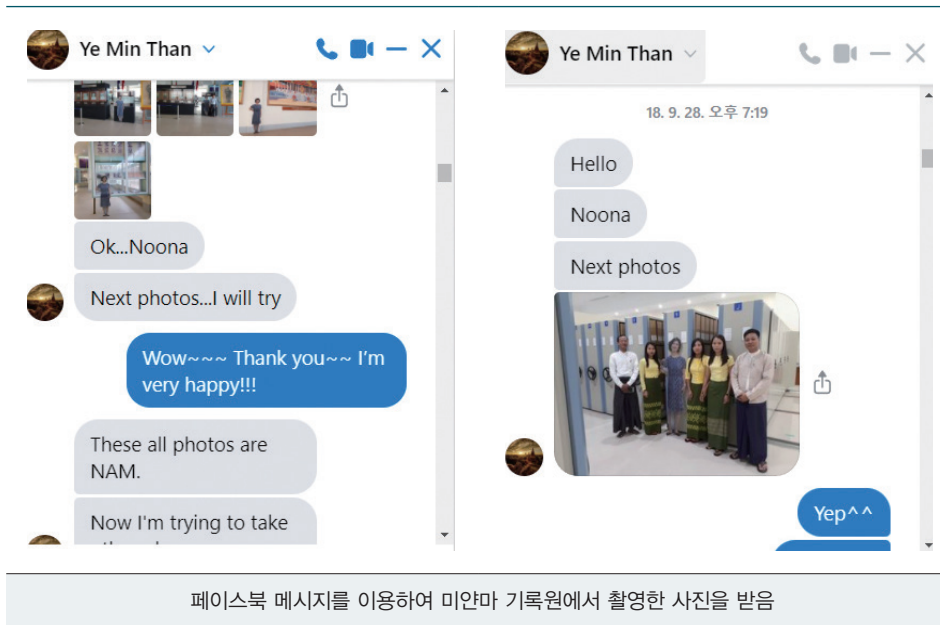
This picture she took it when She join the Pjom Pen day, Khmer traditional ceremony, on 6 October at Amaravati monastery in the UK.

This ceremony is often celebrated every year in order to offer the food to the monk and dedicating there benefits to ancestors.

· 참여자들 : Ms Vuthyneath, KV neath

4) 미얀마 아키비스트 Mr. Yemin Tan과 그의 동료들

Mr. Yemin Tan은 교육과정 운영 동안 성실하였으며 가끔 ‘누나(noona)’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안부를 묻는다. 이 프로젝트에서 미얀마 국가기록원의 전시관, 로비, 보존서고, 시청각실 등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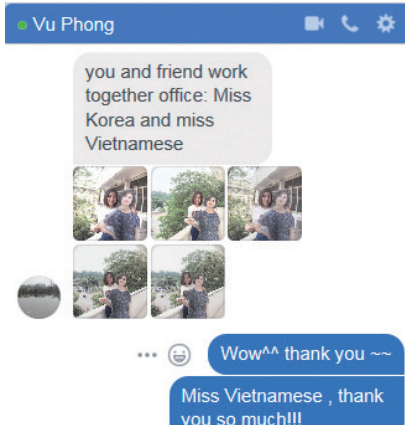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미얀마 기록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받음



Mr. Yemin Tan과 그의 동료들, 미얀마 국가기록원의 서고·로비 등을 소개함

5) 베트남 아키비스트 Mr. Vu Van Phu와 그의 동료

Mr. Vu Van Phu는 수줍이 많은 친구이다. 필자와 그의 동료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필자는 미스코리아, 그의 동료는 미스 베트남이라며 소개하고 있다.

 A screenshot of a Facebook message conversation with 'Vu Phong'. The message says: 'you and friend work together office: Miss Korea and miss Vietnamese'. Below the text are five small photos of two women, one in a white shirt and one in a blue patterned shirt, standing outdoors. At the bottom, there are two reply bubbles: 'Wow^^ thank you ~' and 'Miss Vietnamese , thank you so much!!!'.	 A photograph of two women standing outdoors in front of a building.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a white t-shirt, and the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blue patterned shirt. They are both smiling at the camera.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움	그의 동료와 잠시 베란다에서 쉬고 있음

6) 미얀마 국립도서관 아키비스트 Ms. Mark Lay와 그녀의 동료들

Ms. Mark Lay는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정하다. 교육을 마치고 미얀마로 돌아가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동료들과 미얀마 전통의상을 입고 미얀마 국립도서관을 안내하였다.

국립도서관(Nay Pyi Taw)은 다양한 곳에서 기증한 1만 2천여 점의 야자잎 필사본 묶음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컬렉션에는 종교 문헌은 불교 문헌에 관한 것, 비종교적 텍스트는 문학 작품, 관습법, 역사적 텍스트, 전통 의학 및 기타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쓰여진 야자잎 필사본이 포함되어 있다.



- Date : 2018. 9. 27.(Thu)
- Place : Palm leaf manuscript collection of National Library of Myanmar (Nay Pyi Taw) (New capacity) National Library (Nay Pyi Taw) is collecting and preserving the number of over twelve thousands of palm leaf manuscripts bundles donating from various places and giving the services to the public. It includes religious texts and non-religious texts. Religious texts are concerning with Buddhist texts. Non-religious texts are concerning with literary work, customary law, historical texts, traditional medicine and other. This collection includes palm leaf manuscripts wrote between 15th century and 19th century.
- People : Myint Myint Kyi, Moe Moe, Shwe Nwe Soe and Aye Thandar Khaing.
They are Librarians and our colleagues.
- Descriptor : Myint Myint Kyi

7) 미얀마 Ms. Su Haling Htay 고고학자와 그녀의 동료들

Ms. Su Haling Htay는 고고학자이며 기록문화유산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다. 2015년 교육과정이 끝난 후 페이스북 친구로 현재까지 교류를 하고 있다.



발굴현장에서 발굴된 뼈, 동전 등을 실험하는 공간임(2018.10.30.)



Su Haling Htay는 지역민들에게 필자를 그녀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함께 촬영함

8) 인도네시아 아키비스트 Mr. Aria와 그의 동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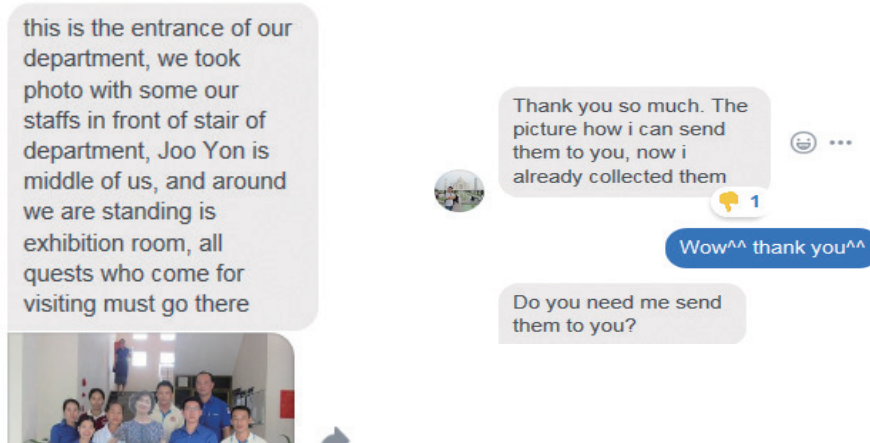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Mr. Nugie, Parno, Mr. Amieka, Mr. Rustam, Ms. Jooyeon kim, Ms. Stella, Susanto (Mr. Espresso Man), Mr. Sutiana, Mr. Aria 등은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기록원의 로비, 역사 디아로마 등 여러 곳을 소개하였다.



- Date : 2018, Oct 1st(Monday)
- Place : History of the Nation Journey Diorama (Map of Indonesia Archipelago)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akarta
- Story about place : This is the Diorama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historical journey of our nation.
- People : (left to right) Parno, Rustam, Nugie, Mr. Amieka, Susanto (Mr. Espresso Man), Sutiana, Jooyeon Kim, Stella, Aria
- Story about People : All of the participant of NAK Records Archives Management Training Program 2015 were visited by Ms. Jooyeon Kim in Jakarta and took a picture together. We were very happy at that moment.
- Descriptor : Aria

9) 라오스 국가기록원 아키비스트 Mr. Boubolay Ch와 그의 동료들

Mr. Boubolay Ch는 작년(2021년)에 득남하여 행복한 아빠가 되었다. 라오스 국가기록원의 전시관, 작업 공간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 사진은 라오스 국가기록원 전시관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모습이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움



- 장소와 스토리 : this is the entrance of our department, we took photo with some our staffs in front of stair of department, Joo Yon is middle of us, and around we are standing is exhibition room, all quests who come for visiting must go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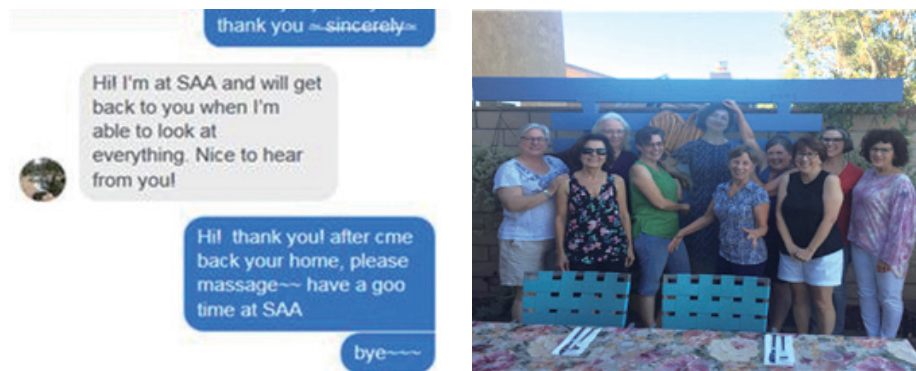
2. 미국 아키비스트들과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인 Ms. Jackie Dooley, Mr. Geof Huth & Ms. Karen Jamisin Trivette, Ms. Rosemary Austin, Mr. Rick Peuser, Ms. Kim Anderson과 동료들은 페이스북 친구들이다.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에 응하였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였다.

1) Ms. Jackie Dooley(Retired archivist and librarian, Bailey & Barney's devoted human.)

Ms. Jackie Dooley는 아키비스트이며, OCLC의 전산전문가 이자 기록물 기술(Description) 전문가이다. 2017년, 포틀랜드에서 개최된 미국기록전문가협회 연례회의의 출장길에 만났다. 기록물 디스크립션 발표 자료, 미국의 기록물 기술동향 등 기록관리 분야 연구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2018년 8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젝트 모집 내용을 읽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친구들 모임 파티에서 필자와 함께 촬영함

2) Mr. Geof Huth & Ms. Karen Jamisin Trivette(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 Chief Records Officer / Chief Law Librarian)

Mr. Geof Huth와 Ms. Karen Jamisin Trivette는 2012년 샌디에이고 미국기록전문가협회 연례회의에서 처음 만났으며, 지난 6년간 페이스북 친구로 지내왔다. 그는 시인이자 작가이자 아키비스트이다. 2017년 포틀랜드 미국기록전문가협회 연례

회의에서 다시 만났으며, 미국기록전문가협회장과 면담을 주선했다.⁶⁾ 이번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다음 사진은 ICA 섹션회의에 참석했을 때, 스페인 살라망카 안뜰에서 Ms Karen Jamisin과 그의 동료와 함께 매일 점심을 먹었던 추억이 깃들여 있는 특별한 공간을 소개하였다.



- Place : Colegio Arzobispo Fonseca, Fonseca, 4, Salamanca, Spain
- Date : 2018-10-04 14:46
- People : Karen Trivette and Willem Vanneste
- Description : Geof Huth took this picture of Karen and Willem in the courtyard where we had lunch every day we were in Salamanca, Spain, for the conference of the Section in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ion Archive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In this courtyard, we made good friends (including Willem) and ate good food. It is a special spot for us, made even more special by the giant metal baby heads temporarily installed there.
- Descriptor : Geof Huth

6) 김주연, 「달은 듯 다른 우리 기록인들의 만남 : 2017 SAA in Portland」, 『기록인(N) 40호』, pp.68~75, 2017.

3) Ms. Rosemary Austin(미국 알래스카 거주, 아키비스트)

Ms. Rosemary Austin은 2017년 미국 포틀랜드 기록전문가협회 연례회의에서 만났다. 그녀의 이름처럼 로즈메리 향기를 지닌 대학기록관 아키비스트이다. 그녀는 자전거 하이킹이 취미이며, 필자와 함께 하이킹을 떠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 Date : Early October 2018
- Place : Getaway mountain bike trail outside Moab, Utah, USA.
- Story : Southern Utah is one of the places I love to visit. Its natural rock formations with canyons, mesas, arches, and towers inspire artists, poets and other writers, and environmentalists. But it is also a land of resource extraction where uranium miners inspired road building and energy companies pump oil from the ground not far from trails.
- People : Rosemary Austin, Jooyeon Kim (in some photos, Lori Gonzalez is behind Jooyeon)
- Descriptor : Rosemary Austin
- Photographer : Nancy Richmond

4) Mr. Rick Peuse(워싱턴,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 Administration)

Mr. Rick Peuser는 페이스북 친구이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메릴랜드 컬리지 파크,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정문을 소개하였다.



Richard Peuser

나에게

영어 > 한국어 > 매일 번역

In front of the National Archives, College Park, Maryland!!!! Standing tall!



메릴랜드 컬리지 파크,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정문을 소개함

5) Ms. Kim Anderson과 동료들(National Archives of the American Archivist 시청각기록물 담당)

Ms. Kim Anderson은 페이스북 친구이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아카이브의 시청각물 작업실을 소개하였다. 1987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기록 보관소의 시청각 자료 컬렉션(당시 "도상학"이라고 함)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 컬렉션과 이 공간은 그녀에게 항상 매우 특별할 것이며, 2018년 12월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하였다.



- Date : 19 September 2018
- Place : Audiovisual Materials Workroom (Rm 215), State Archives of North Carolina, 109 East Jones Street, Raleigh, NC
- People : Kim Andersen (AV Materials Archivist at the State Archives of NC) and Jooyeon!
- Story : I have worked in this building for 31 years. I began my career in the Audiovisual Materials Collection (then called "Iconographics") in the State Archives of North Carolina in 1987, and this collection and this space will always be very special to me. I am retiring in December 2018 and will not be working here anymore, which is bittersweet. I am ready for a career change but I will always have a bright place in my heart for this place and the work I did here.
- Descriptor : Kim Andersen

3. 일본 아키비스트와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Izumi Hirano(일본 릿쿄대학 아키비스트)를 2017년 포틀랜드 미국 기록전문가협회 연례회의에서 만났다. 도쿄 릿쿄대학 협동시민사회연구센터 열람실에는 사회 운동의 거대한 아카이브 컬렉션이 있으며,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사랑한다고 소개하였다. 컬렉션을 함께 처리하는 그의 동료들을 소개하였다.



- Date : 2018.10.04.(Thu)
- Place : Reading room, Research Center for Cooperative Civil Societies, Rikkyo University, Tokyo
(Story about place) This place has a huge archival collection of social movements. I (who took the photo) work here and love this reading room because here I can meet and talk with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 People : Mamiri Imai, Kouhei Abe, Ri Yongmi, Kaho Yamazaki and Mitoe Onoda,(Story about people) We process the collection together—we believe that our work is not just about organizing things, but about connecting people of the past with those of the present!
- Descriptor and photographer : Izumi Hirano

4. 과학자, 고고학자, 예술가, 지인들과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Mr.Robert Grag(고고학자, Marktgemeinde Essenbach Project manager Archaeologisches Museum, 독일), 김민준(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수, 미국), Andrew Van der Merwe(Beach calligrapher, 남아공), 신보람(문화유산교육전문가, 캄보디아 거주), 최인화(문화재청 학예연구관, 영국 거주), 이영애(퇴직 공무원, 중국 대련 거주)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1) Mr. Robert Grag(고고학자, 독일)

페이스북 친구인 Mr. Robert Grag는 정원이 사무실이자 휴식공간이며 직업에 대한 영감을 찾으며, 친구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하였다.



- Date : 20th of September 2018
- Place : My garden in Winhöring, Bavaria/Southern Germany
- Story : YOU and Robert Graf
Story about place: My garden is my office, my living-room, my recreational park and my kitchen at the same time. Here I can find my inspiration for my job, relaxation in spare time and here I meet my friends and have barbecue with good conversations together with my whole family.
- Descriptor : Dr. Robert Graf M.A.

2) 김민준(서던 메소디스트 대학교수, 미국)

김민준 교수는 페이스북 친구이며, 2017년 대전 LG 화학연구소의 미술관에서 직접 만났다. #BASTLab은 2명의 박사후 연구원, 8명의 박사 과정 학생, 3명의 학부 연구원이 나노/마이크로로봇 및 나노포어 기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나노 생명공학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의 East Campus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Date : 2018. 9. 19.(Wed)
- Place : Biological Actuation, Sensing, and Transport (BAST) Laboratory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 Story about place : The #BASTLab is located on SMU's East Campus, in which 2 postdoctoral fellows, 8 PhD students, and 3 undergraduate researchers are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new types of nano biotechnology such as nano/microrobotics and nanopore technology.
- People : Jiannan Tang, Dr. Nuwan Bandara, Jugal Saharia and Dr. MinJun Kim
- Story about people : #BASTLab members are willing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beyond space, on your mark' project coordinated by artists 김주연 and Jaewook Koh. We are excited to be part of the project as roboticists and nanoengineers.
- descriptor : kim min Jun

3) Mr. Andrew Van der Merwe(Beach calligrapher, 남아공)⁷⁾

Mr. Andrew Van der Merwe은 비치 캘리그래피 아티스트이며, 페이스북 친구이다. 8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젝트 모집 공고를 보고 이 프로젝트에 신청하였다. 그는 그의 캘리그래피 작품과 필자의 원본 사진이미지를 합성한 2개의 캘리그래피 합성 작품과 역사적 사건이나 장면속 원본 사진 속에 필자의 디지털 이미지를 역사적 장면의 증인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8장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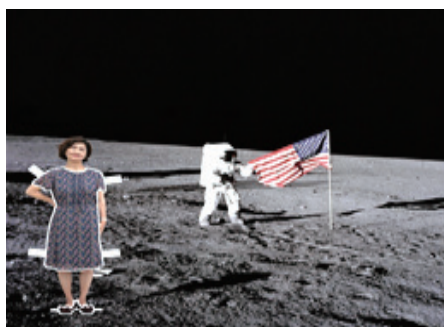


Jooyeon Kim does Beach Calligraphy

- Date : 2018-02-05(Sunday)
- Place : Misty Cliffs beach, Cape Town
- Story :
- People : Jooyeon Kim, Andrew van der Merwe (aka, Beachscriber)
- Descriptor : Andrew van der Merwe

"I don't have a Story or a Description. My sense is that these are better without. The absurdity requires some mystery. I'd rather just leave them with those titles. Do you agree?"

7) <http://www.beachscriber.imagekind.com>



• Andrew Van der Merwe :

"The other images are another idea: to take very famous photographs and put yourself into them. This idea might require some work on your part. If you print them like postcards or small Polaroids, you can add little messages to your mom. If you hang them all on a string, people can read the back (or with some other method of seeing the back)."

4) 신보람(문화유산교육전문가, 캄보디아)

신보람은 페이스북 친구이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앙코르 유적 내 고대 도시 앙코르 톰 안 중앙에 위치한 바이온 사원 뒤편 왕궁 코끼리 테라스에서 촬영하였다.



5) 최인화(문화재청 학예연구관/영국 거주)

최인화는 10여 년된 친구이다. 당시 프로젝트 진행 시기에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 해리포터 촬영지인 옥스포드 chist church college를 소개하였다.



최인화 :

- 장소 : 옥스포드 Christ Church College(옥스포드대학 여러 칼리지 중 하나)
 - 해리포터의 촬영지(해리포터 밥 먹을때 긴~ 테이블이 있는 곳)이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의 탄생지(이곳 수학선생님이 여기를 배경으로 했다고 함)
 - college는 중세풍의 건물과 그 주변은 목초지로 되어 있으며, 가까이 템즈강이 흐르고 있음
- 의미 :
 - 이곳은 옥스포드 저희집 근처로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그 앞 벤치나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곤 합니다. 이곳에 오면 해리포터 촬영지라 그런지 마치 제가 영화 속에 있는 것 같고,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탄생한 곳인 만큼 그 배경처럼 자연이 무척 신비롭고 평화로워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또 그런 이야기나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6) 이영애(퇴직 공무원, 중국 대련 거주)

이영애는 2009년, 과천의 중앙공무원 교육원, 승진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숙사 방을 함께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이제는 관세청을 퇴직하고 중국 대련에서 중국어 연수 중이다. 행락지인 대련의 ‘동방수성’과 작은 어촌마을인 ‘어부와 부두’를 소개하였다.



이영애 : 이곳 대련은 부산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았고, 사진 구도도 썩 마음에 들지 않게 찍혔어요. 구도는 괜찮은데, 브로마이드가 바람에 날려서 제외시킨 것도 있어요. 장소는 왼쪽은 대련의 "동방수성"이라는 행락지, 오른쪽은 "어부의 부두"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IV. 마무리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분야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람객 참여형 전시를 기획하여 기획자와 관람객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관람객과 기획자 사이에서도 콜라보레이션 단계에서 ‘코크리에이션(Co-Creation)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큐레이터가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전시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전시 기획자이자 전시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고재욱 작가는 작가와 일반대중이 생각하는 미술 사이의 간극에 대한 질문을 주제로 사회 시스템의 빈틈을 관객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해 왔다. 2018년에는 Cross - Platform 전시를 기획하면서 큐레이터가 전시 주제를 선정하고 콘텐츠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전시를 제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관람객이 전시 기획자이자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시를 구상하였다.

필자는 고재욱 작가의 이러한 전시 방향에 공감하고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를 주제로 그의 Cross-Platform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필자의 사진을 실제 크기로 출력하여 해외로 보내고 현지에서 지인들이 필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여 필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다시 되돌려 받는 프로젝트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가 촬영장소를 어떻게 선정했으며, 촬영한 장소와 장소에 담긴 특별한 의미, 함께 촬영한 사람들, 촬영한 시간 등 사진 한 컷에 담겨진 시공간의 스토리를 함께 아카이빙 하였다.

특히,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매개로 참여자들과 소통하면서 참여자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컨셉을 구상하는 전시 기획자이자 사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큐레이터와 참여자와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 및 미국의 아키비스트, 과학자, 예술가, 지인 등 12개국 20여 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추진하였다. 먼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참여자를 선정하고 참여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다. 참여자들은 제공받은 프로젝트 진행 매뉴얼을 토대로 사진 촬영을 하고 관련 정보들을 아카이빙 하여 다시 페이스북 메신저 혹은 전자우편으로 필자에게 돌려 보내었다. 필자는 제공 받은 사진과 사진 관련 시간, 장소, 스토리 내용을 아카이빙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빙 자료를 큐레이팅하여 오픈 전시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들과 전시기획 및 개최 과정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하였다.

참여자들은 필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 한 컷마다 장소, 시간, 이야기 등 맥락정보들을 담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직장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 도서관, 학생연구실(랩실) 등을 소개하였다. 캘리그래피 예술가는 필자가 캘리그래피 작업을 완성한 장면을 보여주었고, 몇몇 참여자들은 여행길, 종교행사 등 일상속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작업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경험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진촬영 장소를 선정하고 스토리를 기획하고 각자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필자는 단지 그들이 전시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였다.

광고전문가인 김홍탁은 광고계의 마케팅 경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광고계에는 ‘들려주면 잊어버린다. 보여주면 기억한다. 경험하게 하면 이해한다’는 말이 있다. 놀이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날 만큼 매력적이어야 한다. 이곳에서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놀이터를 찾아와 브랜드를 만나고 브랜드와 놀고 브랜드를 퍼뜨리는 행위가 펼쳐지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핵심이다.”⁸⁾

8) 김홍탁, 『디지털 놀이터』, pp.21~23, 2014.

코로나 상황의 언택트 시대에는 특히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하여 큐레이터나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입하는 방식에서 대중들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중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네트워킹 소통방식을 취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예술작품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Beyond Space, On Your Mark’ 아카이빙 전시 프로젝트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향후 아카이브 전시 분야에서 관람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 전시 놀이터를 제공하여 그들이 ‘아카이브를 만나고 아카이브와 놀고 그로 인해 아카이브를 퍼뜨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참고문헌

학술논문

- 김주연·조영주, 「국제 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의 운영현황과 과제」, 『기록인』 31호, pp.60~66, 2015.
 김주연, 「닭은 듯 다른 우리 기록인들의 만남」, 2017 SAA in Portland, 『기록인』 40호, pp.68, 2017.

단행본 및 보고서

- 김성하·성영권, 『경기도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방안』, 2018.
 김홍탁, 『디지털 놀이터』, 2014.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서울공공미술 100개의 아이디어』,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크로스 플랫폼』, 2018.

웹사이트

- 고재욱 홈페이지 <http://www.jaewook.com>
 김주연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intamaniikykim>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culture/archives>
 아르테 365 홈페이지 <http://www.arte365.kr>
 엔드류 반 홈페이지 <http://www.beachscriber.imagekind.com>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 목	작성자	발간일
vol. 1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황정원 기록연구사	2019. 10. 8.
vol. 2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① 기록의 개념과 성립조건 - 정보와 증거로서의 기록의 함의를 기록물법에 적용하기 - ② 기록이란 무엇인가? -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	이점마 서기관 임신영 기록연구사	2019. 10. 22.
vol. 3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 방안	윤정훈 행정사무관	2019. 10. 31.
vol. 4	“도전! 기록관리 명감사되기”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	김명옥 사서사무관	2019. 11. 15.
vol. 5	국가기록원 블록체인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의미와 전망	왕호성 기록연구사	2019. 11. 22.
vol. 6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의 방향	이지영 공업연구사	2019. 12. 5.
vol. 7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체계 모델 재설계	김현숙 공업연구사	2019. 12. 12.
vol. 8	건축아카이브의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 ICAA BRAGA 2019 참관기 -	김수연 전문임기제 허인영 전문임기제	2019. 12. 13.
vol. 9	전자기록 장기보존패키지 모델 시험과 새로운 모델 제안	신동혁 공업연구사 김상국 전산사무관 나미선 학예연구관	2019. 12. 17.
vol. 10	기록물 매체수목 해외 동향 및 향후 과제	박지혜 공업연구관	2019. 12. 24.
vol. 11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2018년 생산분)	김현애 기록연구사	2020. 1. 15.
vol. 12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 방안	하정하 기록연구관	2020. 1. 29.
vol. 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제도 현황과 전망 - 교육원 과정을 중심으로 -	성주영 기록연구사	2020. 2. 12.
vol. 14	정기실태점검을 통해서 본 기록관리 개선방안	박지태 학예연구관 송혜현 사서사무관	2020. 2. 27.
vol. 15	공공기록물법과 전자정보법과의 관계	임신영 기록연구사	2020. 3. 11.
vol. 16	해외 공공기록 평가선별제도 관련 사례 및 시사점	조영주 사서주사	2020. 3. 20.
vol. 17	속기록 의무생산회의에 대해 묻고 답하다	박이준 학예연구관 이주현 기록연구사	2020. 4. 3.
vol. 18	기록관리 현장 지원을 위한 기관방문 컨설팅의 추진	나창호 기록연구관 정경택 공업연구사	2020. 4. 21.
vol. 19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 - OCR 적용 사례 및 테스트 결과를 중심으로 -	박지혜 공업연구관	2020. 5. 13.
vol. 20	이용 통계로 알아보는 국가기록포털의 현재	서경란 전산주사보	2020. 5. 27.
vol.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비공개기록물 공개제분류 업무절차 개선	권미현 기록연구사	2020. 6. 17.
vol. 22	손상파일 유형과 복구사례로 본 전자기록의 이해	김자경 기록연구관	2020. 7. 21.
vol. 2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 데이터세트 형태의 전자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실행 방안 -	이주광 공업연구관	2020. 9. 11.
vol. 24	특수지의 특성과 기록보존	허인영 전문임기제	2020. 10. 23.
vol. 25	기록물 상태검사 개선방향과 데이터 활용 사례	박지혜 공업연구관 이상화 한시임기제	2020. 11. 20.
vol. 26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개선방안	최현욱 학예연구사	2020. 12. 18.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발간 목록 ||

발간호	제 목	작성자	발간일
vol. 27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절차 수립 및 적용 사례 기록관리시스템 컨설팅 현황	황정원 기록연구사 이창영 공업연구관	2021. 2. 26.
vol. 28	대통령기록관 소장 미술품의 이해와 활용 영구기록물 분류체계 추진현황	김정은 학예연구관 김현진 기록연구사	2021. 3. 31.
vol. 29	공공기록물법령 질의답변 사례 - 전자기록물 관련을 중심으로 - 독립만세운동 기록물 복원·복제 지원사례	김명옥 사서사무관 양소은 학예연구관, 조은혜 학예연구사	2021. 4. 30.
vol. 30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지원업무와 개선방향 민간분야 기록관리 관련 현황 및 시사점	문찬일 기록연구사 임신영 기록연구관, 이혜원 기록연구사	2021. 7. 2.
vol. 31	디지털화 기록의 문자인식(OCR) 기술 적용 및 활용방안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사본의 원본인정을 위한 기준, 절차 및 관리방안 제안	홍정기 보건연구사 백승옥 사서사무관 김상국 전산사무관	2021. 9. 30.
vol. 3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동향 도입하고 싶은 해외기관의 기록물 보존정책	김지훈 사서주사, 최찬호 공업연구관 안규진 학예연구사, 이재영 인턴연구원	2021. 11. 30.

- 『기록관리 이슈페이퍼』는 기록관리 현장의 다양한 현안 논의와 기록인 여러분의 귀중한 연구성과 공유를 기다립니다. 기고를 원하시거나, 본지의 발간과 관련한 일체의 질의 혹은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혹은 이슈페이퍼 내용에 대한 질의 등 필자에게 전달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뒷면의 문의처나 필자의 메일을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